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도입… EU식 규율로 막판 조율

당국, 올해 말까지 법제화 추진
이자지급 금지·발행요건 등
유럽연합 ‘MiCA’와 유사 방식
업계 “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과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금지 등 구체적인 발행 요건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유사한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심사기준 마련 등 입법 이후 절차들을 미리 준비해 실제 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지난 9월 이후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고,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관련 주요 요건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하면서 발행 주체의 이자지급 금지’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국감장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및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금

융당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서 국제적인 기준은 유럽연합(EU)의 ‘MiCA’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다. 두 법안 모두 발행주체의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투자자의 요청 시 즉시 현금으로 반환이 가능한 준비금을 단기 국제·은행 예금 등 신뢰성 높은 자산으로 갖추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MiCA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금융당국이 연내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6월 출범한 현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다수의 관련 법안이 입안됐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간 견해차가 불거졌고, 9월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도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정체됐다.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효과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권 주도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 중이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EU의 MiCA와 동등한 규제 수준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규제 방향성을 놓고는 금융당국과 한은의 입장이 일치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2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정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면서 “다만 제도적인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해당 내용을 포함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금청구권 신탁, 저축성·치매·요양까지 넓혀야”

적용 범위 ‘일반사망’에 묶여
생전 생활·요양비 관리에 빈틈

지난해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사망보험금 상속을 대체화했으나 적용 범위가 ‘일반사망’에 묶여 생전의 생활·요양비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저축성·치매·장기요양 보험까지 넓히고 요양 특약과 지출 규칙을 신탁과 연동해 ‘살아 있는 동안의 자금관리’로 정착시키자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2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망보험금 상속 관리의 틀을 열었다.

다만 신탁 허용 범위는 ‘일반사망’에 한정되고 3000만원 이상·보험계약대출 불가·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수익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제한 등 촘촘한 요건이 걸려 있다.

이에 따라 신탁이 노년의 생활·요양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생전 자금관리 장치’가 되려면, 저축성(연금)과 보장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이미지. /Chat GPT

성(치매·장기요양) 보험까지 대상을 넓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의 생활 단면을 보면 ‘신탁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2023년 1인 가구는 783만 가구(전체의 35.5%),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14만 가구(9.7%)다. 2052년에는 각각 962만 가구(41.3%), 496만 가구(21.3%)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 환자도 2025년에 97만명(유병률

9.1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2023년 154조원(GDP의 6.4%)에서 2050년 488조원(15.6%)으로 커질 전망이다. 삶의 후반부에 꾸준히 지출돼야 하는 ‘목적 자금’을 사전에 규칙화해 관리·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 지표는 더 냉정하다. 국내 신탁 수탁고는 2024년 말 1376조원이지만 ‘관리형’의 핵심인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고작 0.05%다. 경제 규모 대비 신탁 수탁고 비율도 2010년 26.9%에서 2024년 54.0%로 높아졌지만 미국 119.8%·일본 269.6%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특히 업권별로는 은행이 47%를 점유하고 보험사는 2% 수준(이 중 퇴직연금 신탁 20조원 포함)에 불과해 존재감이 미미하다. ‘생전 자산·현금흐름 관리’라는 과제가 한국 신탁시장에서는 아직 본령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제도도 생활의 수요를 따라가기엔 장벽이 높다.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가능하다. 신탁 설정 후라도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면 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 저축성(연금) 혹은

치매·장기요양 보험금과 같이 ‘살아 있는 동안’ 꾸준히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은 신탁으로 미리 설계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능력 저하, 보호자 부재 등 상황에서도 생활·요양비를 목적대로 집행하는 체계가 약하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 자산이 집(부동산)에 편중되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점도 생전 신탁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개선책으로 ▲신탁 대상의 저축성·치매·장기요양 보험 확대 ▲치매·요양 특약을 엮은 종신·연금 등 ‘지급 확정형’ 상품을 만들어 신탁과 연동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등 ‘계획된 보험 계약대출’ 허용 ▲장례·돌봄·법률·세무 등 부가서비스 결합 ▲설계사 채널을 통한 홍보·소비자 교육 강화를 꼽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 보장과 장기요양보장을 추가해 금전채권 지급의 확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요양 서비스 제공과 연계해 ‘통합관리형 치매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신탁상품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있도록 상품과 제도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테스트 베드도 활용한다. 서비스형 상품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토탈·저해지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 IFLA APR 조정어워즈 최우수상 본상 쾌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APR) 조경(LA) 어워즈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 조경을 출품해 주거(Residential)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Award of Excellence)과 본상(Honou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돼 현재 80여개 회원국을 보유한 전세계 조경가들의 대표기관이다. 세계조경가협회상은 조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민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조경 설계를 적용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총 15회의 세계조경가협회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이는 래미안 조경의 진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래미안 브랜드 파워와 주거의 품격을 한층 높여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GS건설 혁신 아이디어 허브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GS건설은 협력사 등 외부의 신기술 제안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신설해 품질, 안전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고, 내부 임직원들의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두 개의 창구로 운영된다.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기술과 아이디어는 관련 실무부서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받고, 유관 부서의 협업 하에 현장 실증과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탈바꿈한다.

특히, 보유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적 인프라 지원 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이번 신설된 플랫폼을 통해 우수제안사로 선정되면, GS건설의 현장 실증 지원과 상용화 기회를 제공받는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과 함께 특허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파트너사와 기술 동반성장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안상미 기자

55세 이상 고령층,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 완료자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노후 지원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55세 이상 고령층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생명보험회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가입자로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는 우선 23일 기존 고객중 사망보험 유동화가 가능한 소비자를 대

상으로 안내 문자 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9만 건으로 35조4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